

무주군, 3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군민 2만3000여명 대상 공직자 각 가정 방문 10만원 전달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3차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일상회복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천명을 육박하는 등 다시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특히 "재원은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8조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3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수혜 대상은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해 1월 18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2만3000여 명으로 공직자(마을담당관 388명)가 27일과 28일 이틀동안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황 군수는 "서로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다는 믿음, 같이 극복해



황인홍 무주군수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며 "상품권을 소비했을 때 무주군 곳곳에서 순환될 23억여 원은 꼭 막힌 무주군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군수는 "청정무주를 지키고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방역수칙 준수 등 성숙

한 군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군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감염예방과 경제 방역의 동지가 돼 함께 가지며 "군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무주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와 관련 무주군의 경우 23일 현재 57명이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새로운 장수! 한국의 네덜란드!"

최훈식 민주 도당 동부권활성화 특별위원장, 장수군수 출마 선언

최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동부권활성화 특별위원장이 장수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훈식 특별위원장은 출마 일성으로 "지금 장수군의 가장 큰 폐해는 축근과 소수만을 위한 행정"이라고 진단하고 "군민 모두를 위한 위민행정을 위해 행정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30여년 경력의 목소리 내는 행정전문가로 자신한다"면서 "배관매직 철폐와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으로 공직이 살아있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미래가 있는 장수를 만들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최훈식 출마지는 "유럽의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지만 농업수출국 세계 2위의 강국"이라며 "장수도 네덜란드를 롤모델 삼아 대한민국 제일의 부자농촌을 군민과 함께 만들 자신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장수비전과 2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공약으로는 (가칭) 장수 농공사 관화교를 제시했다. '스마트 팜 임대 창업장' 5만 평을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과 실기, 창업자금 인큐베이팅을 통해 젊은 창업농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이가 농업생태계 강화로 지역정착 인구를 늘리고 농산물 안정자금 연 100억원을 확보하여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등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효의 장수 실현을 위해 어르신 행복 요양센터'를 건립하고 독거노인 생활 집중제 실시로 마을주민이 어르신을 돌보는 복지 시스템을 제안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치매보육가립 및 치매MRA 무료검진, 인공관절 무릎수술비 3백만원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최 출마지는 "교육과 청년이 살아야 장수의 미래가 있다"며 "교육과 청년 관련 군 예산을 일기 내 2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



관 거버넌스인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장학재단 운영 개선, 전주장학수 설립 등 지역 청소년들의 장수정착을 위한 장기계획도 내놓았다. 청년미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스스로 자기 미래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직활동 지원, 정착 주거 자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제시했다.

군민 편의를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장수읍과 장계면에 도시가스를 유지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고, 장수의 랜드마크 상상의 숲 시애틀파크 조성이라는 진취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최 출마지는 "소수 몇 명을 위한 군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장수군수가 되고자 군수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언제나 군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장수를 지키며 똑소리 내게 일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 출마지는 장수군청, 전주시청, 전북도청 등에서 30년간 공직자로 일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공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전북도당 동부권활성화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장 대상 청렴교육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각)은 지난 21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참석자 모두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서약서를 낭독했다.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영상 시청으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진안교육지원청은 많은 전북교육 실현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지역청 중 2021년 청렴 마일리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 공공일자리 사업 본격 운영

장수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과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참여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장수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공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일자리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장수군민으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한 자,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기준 초과자도 후 순위 선발할 계획이며, 일지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최종선발자는 3월부터 백신접종 행정 보조 및 생활 방역, 환경관리지원 등의 근무를 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향 떠난 향우들이 돌아오도록 정책 도출해 낼 것"

이해연 무주군의원 무소속 도의원 출마 선언

태권도사관학교 유치 협력 적상산 산악철도 개설 제시



이해연 무주군의원 유권자 40여명과 함께 24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북도의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가동에 불씨를 지켰다

이해연(57) 무주군의원 의원이 유권자 40여명과 함께 24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북도의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16년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정착한 당면과제인 기업 유치, 청년형 일자리 창출, 획기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창출하여 고향을 떠난 향우들이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무주군민의 특산화된 임산물 생산단지과 체질별 건강기능성 삼채소 특구를 조성하고 제2의 로컬푸드 육성시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 전북도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태권도원 내 내자지구 투자확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무

주군의 깨끗한 관광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무주읍 하수정화처리장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적상산 산악철도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획기적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성공시켜 무주군의 영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감시와 대안제시, 정책제안도 잘 할

수 있다"라며 "행정관리사(1급) 자격을 가진 본인이 무주군을 대변할 도의원의 적임자"라고 자신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해연 의원은 무주군과 연안전문대 축산원예학과, 배재대 도시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제5대 무주군의원 의장, 제7대 예결위원장, 제8대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농협 진안지부·진안 내 농축협 조합장, 후원금 전달

농어촌기본소득국민운동 진안군본부에 500만원



농협 진안지부(지부장 정미경)를 비롯해 지역 내 5개 농·축협 조합장들은 24일 농협진안지부에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농어촌기본소득국민운동 진안군본부에 후

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정미경 농협진안지부부장, 송제군 무진장축협조합장 허남규 진안농협조합장, 신용빈 백운농협조합장, 김영배 부귀농협조합

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조합장이 참여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에 힘을 보탰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안정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적, 복지적 수단이다.

정미경 지부장은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으며,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착화가 필요합니다"며, "앞으로 진안군민 모두가 농어촌기본소득국민운동 진안군본부의 이름에 힘을 모아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착화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 용담호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완료

경관식물 식재·사계절 볼거리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

진안군은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용담호변에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생태관광지가 조성됐다.

군 용담댐 유역 유흥지 9,800여㎡ 면적에 물억새, 꽃창포, 별개미취 등 5종 20만본의 친수성 초화류를 식재하고, 파고다 등의자 등 각종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용담호변 관광자원화 추진에 기반을 마련했다.

용담호는 국내 다섯 번째 규모로 조성된 용담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로 20여년 전 건립 당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활용방안 마련이 부족해 지속적인 관광개발 요구가 있는 곳이다.

이에 군은 용담댐 준공 2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용담호의 관광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진안고원형 자유관광 1번지를 비전으로 제시해 용담호 권역 경관활용형 감성관광·자원연계형 융복합관광을 핵심전략으로 다양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동부권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7억5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 푸르름을 선사하는 푸르디야광장과 5~10월 보랏빛으로 피어나는 별개미취·꽃창포 광장을 조성했다. 또한 가을·겨울철 물억새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등 4계절 볼거리가 있는 생태 관광지도 함께 조성했다.

전준성 군수는 "용담호는 진안군에게 소중한 관광자원이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용담호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자원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으로 도비 7억5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 푸르름을 선사하는 푸르디야광장과 5~10월 보랏빛으로 피어나는 별개미취·꽃창포 광장을 조성했다. 또한 가을·겨울철 물억새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등 4계절 볼거리가 있는 생태 관광지도 함께 조성했다.

전준성 군수는 "용담호는 진안군에게 소중한 관광자원이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용담호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자원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김광수 의장은 "나눔을 실천해 기적을 만드는 일에 진안군의회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희망전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제일상회, 장학금 전달

진안군 제일상회(대표 이갑이)는 24일 군수실을 찾아 진안사랑학재단(이사장 전준성 진안군수)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갑이 대표의 아들 이은형 씨가 참석해 "어려운 형편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희망하는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성 이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응원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타 해주시는 뜻 잊지않고, 우리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